# 단기출가학교로 출가장려…대학생 전법 활발

## 2025 포교·신행 결산

**총무원 일원화로 포교원→부 재편**
**출가진흥 · 인력 조직 · 신도 활성**
**동국대 중심 대학생 전법 · 포교**
**전법특임교수 신설로 인프라 확충**

신중일 · 임은호 기자



조계종이 출가장려 사업 일환으로 올해부터 전국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단기출가학교를 개설했다. 교구본사 중 처음으로 수덕사가 9월 12일 제1기 선출가학교를 운영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난 4월 1일 30년 간 유지해 온 삼원체제를 총무원으로 일원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세대가 바뀌었고 탈종교화와 인구 감소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제기된 조직개편 필요성에 따라서다. 이에 포교원은 포교부로 재편, 출가 진흥과 포교 인력 조직화, 신도 활성화에 집중하는 한 해를 보냈다.

단순히 출가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출가 인력을 양성해 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조계종이 출가장려 사업 일환으로 전국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추진한 단기출가학교가 수덕사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9월 12~21이 '제1기 禪출가학교'를 실시했다. 열흘 간의 일정에는 행자 13명이 입교해 전원 무사히 수료했으며, 출가를 결심한 행자도 배출돼 단기출가학교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수덕사는 1기 활동을 바탕으로 제2기 선출가학교를 동안거 해제 이후 운영하기로 했다.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도 11월 21~30일 '선운사 제1기 단기출가학교 쉼, 그리고 시작'을 실시했다. 14~66세까지 총 11명이 입교한 가운데 9박 10일간의 일정에서 입교자 전원이 무사히 일정을 수료했다.

내년에는 제3교구본사 신흥사와 서울 진관사 등이 단기출가를 준비 중에 있다. 조계종은 10개 권역 교구본사에서 출가학교를 순차적으로 개설해 출가 진흥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포교 손길이 닿지 않는 취약 지역 중심으로 전법단 역량을 강화하고 산발적을 포교인력을 결집, 선명상 지역축제를 활용한 지역포교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 지역 불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결집대회 일환인 선명상 축제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제2도시로 웅비하는 인천광역시 위상에 맞게 자비를 실천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지역문화를 꽃피을 것을 다짐했다.

지역역량 결집대회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졌다. 11월 22일에는 세종 광제사에서 '대전·세종·충청 포교역량 결집대회 – 1250인 아라한 야단법석'이 개최됐다. 어린이·청소년·대학생·포교사 등은 전법을 다짐하는 실천선언문을 함께 발표하기도 했다.

대학생 전법·포교 분야는 올 한해 동국대(총장 윤재웅)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됐다. 올해 2월 동국대는 교내 전법을 담당할 '전법특임교수' 제도를 신설하고 전법 인프라를 확충했다. 전법특임교수 제도는 동국대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지도법사단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불교동아리 활동 강화를 위해 신행 마일리지인 '드림 패스(Dream Path)' 제도를 도입했다. '드림 패스 마일리지'는 동아리 가입, 영캠프 참여 등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적립할 시 불교계 장학과 우수 활동 포상에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 같은 인프라 확충의 성과는 9월 16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5 영캠프:주인공'에서 3500여 명이 수계를 받는 것에서 나타났다. 실제 9월 4일 시작한 참가 신청은 2분 만에 마감돼 11일 한 번 더 500석 추가 신청이 진행됐으며, 이 역시도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다.

나아가 동국대는 대학생 전법으로 탈북민 포교의 새 장을 열었다. 동국대를 중심으로 한 24개 대학 53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북한 출신 학생 불교동아리 '無이판사판'이 9월 25일 창립됐다. 북한 출신 학생 불교동아리 창립은 전법·포교의 중요한 성패는 '관심'에 있음을 다시금 보여줬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 이하 교불련)는 대학생 전법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교재 제작에 들어갔다. 8월 11일 열린 워크숍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교재 발간을 위한 워크숍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 재난이 일상 된 시대, 불교계 대응 어디까지 왔나

**조계종복지재단, 미래 포럼 개최**
**'재난 일상화 시대 불교계 역할'**



'재난의 일상화 시대'라는 안타까우면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재난 예방과 회복,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재난 대응의 현재와 과제를 점검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12월 17일 서울 노무현시민센터 1층 다모여강의실에서 '재난 일상화 시대: 불교계 역할'을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했다.〈사진〉 포럼은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 창립 20주년과 더프라미스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심리·정서 회복과 불교계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재난 대응 패러다임이 '물자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계의 자비 실천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오유현 더프라미스 국제재난심리지원단(이지스) 단장은 '이지스 10년간의 활동'을 통해 재난심리지원이 선택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필수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오 단장은 "재난은 눈에 보이는 피해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더 오래 남긴다"며 "심리지원은 재난 이후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사후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응 초기부터 설계돼야 할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이지스는 지난 10년간 국내외 재난 현장에서 아동·노인·이주민·난민 등 재난약자를 중심으로 심리지원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이지스는 피해자뿐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봉사자와 활동가의 심리적 소진에도 주목해 왔다. 출국 전·중·후 심리지원을 위한 다층적 지원을 통해 '돕는 사람을 돌보는 구조'를 실천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오 단장은 "지속가능한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이중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와 활동가 모두가 회복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박정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후원사업부 대리가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봤다. 박 대리는 "구호봉사대는 수해 지원에서 출발해 태안 기름유출 사고, 해외 지진, 세월호 참사, 코로나19까지 국내외 주요 재난 현장을 함께해 왔다"며 "불교계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현장 실천의 상징이 돼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구호봉사대의 활동은 물자·인력 지원을 넘어 심리지원, 아이돌봄 쉼터, 재해구호 나눔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리는 "재난 이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복구"라며 "구호봉사대 역시 사람 중심 대응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 서울 불광산사, 장충동서 성북동 이전

**12월 13일, 성북동 법당서 첫 법회**
**"새로운 인연 맺고 지역 적응"**




서울 장충동에서 성북동으로 이전을 앞둔 서울 불광산사(주지 혜호 스님)가 새 법당에서 연말법회를 열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서울 불광산사는 12월 13일, 새로운 터전인 성북동 법당에서 연말법회를 봉행했다. 불광산사는 현재 장충동에서 성북동으로 터전을 이전하고 있다. 이날 연말법회는 성북동 법당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법회로 신도 50여 명이 동참했다.〈사진〉

서울 불광산사는 내년 봄, 성북동 법당을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다만 장충동 법당도 당분간 유지된다. 혜호 스님은 "성북동 법당에 정식으로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 인연 있는 불상을 살피는 중"이라면서 "법당을 잘 꾸며 여법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북동 법당에는 현재 주지 혜호 스님과 비구 스님 1명 등 총 2명의 스님이 상주하고 있다. 혜호 스님은 내년 봄 정식 개원에 앞서 교리강좌 같은 신도교육을 비롯해 서예, 다도, 태극권 등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혜호 스님은 "설비보완 등을 거쳐 자리를 잡으면 대외적으로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법당을 찾은 이들과 인연을 맺고 새로운 지역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 불자 리더들 "새해도 자비로 희망 전할 것"

**12월 12일, 불교리더스포럼 만찬**
**김혜경 여사 "국민 보듬어 주길"**


사진제공=대통령실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는 불교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에도 사회에 희망과 울림을 전하는 등불이 될 것을 다짐했다.

불교리더스포럼(상임대표 이기흥)은 12월 12일 서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불기 2569년 불교지도자초청 국민화합기원 송년만찬'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단 지도자 스님들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 불교리더스포럼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진우 스님의 안내로 5분간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한 후, 서로 합장 3배를 하며 송년 인사를 나눴다.

김혜경 여사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과 시련이 더 큰 도약과 화합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불교지도자 여러분이 국민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흥 상임대표는 새롭게 구성된 리더스포럼 7기 대표단을 발표하고 "앞으로도 사회에 희망과 울림을 전하는 역할을 묵묵히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7기 리더스포럼은 17개 분과, 23개 지역교구에서 회원 1080명이 참여한다.

진우 스님은 '정신문명의 개막과 선명상의 길' 주제로 법문했다. 여수령 기자

# 동국대 지역불자장학 기금 전달 잇달아

**수덕사 3000만원 · 삼천사 5000만원 '쾌척'**



'예산 수덕사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 모습.

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와 서울 은평구 삼천사(회주 성운 대종사)가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기금 전달하고 동국대 재학생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었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12월 17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 수덕사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제133회)'을 개최했다. 이날 수덕사는 장학금 3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충남 예산·당진·홍성·서산·태안 출신 재학생 10명에게 각각 장학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덕숭총림 수덕사와 첫 인연을 맺게 된 충남 예산·당진·홍성·서산·태안 출신 재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겨울 방학기간 고향 가는 길에 수덕사에 방문해 좋은 추억과 인연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미래 사회와 미래 불교를 이끌 인재를 위해 어떻게 후원할지 방법을 고민하던 차에,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조언에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인재불사를 위해 앞으로도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에 계속 참여해 힘을 보태겠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앞서 은평구 삼천사는 12월 16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열린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제132회)'에서 기금 5000만원을 쾌척했다. 장학금은 서울 은평구 거주 학생과 이과대학 불교동아리 '자연科 함께' 회원, 대학원 학인스님, 북한출신 학생 등 총 50명에게 각 100만원씩 수여됐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장학생들이 어긋나지 않게 성장하고 불심을 키우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삼천사 회주 성운 대종사는 "동국대가 올해 보여준 놀라운 규모의 단체 수계법회를 삼천사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응원했다"면서 "젊은 불자 양성이라는 목표를 향한 이사장 스님과 총장님, 학교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지속적인 기부를 약속했다.

한편,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은 2021년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시작한 장기 프로젝트로, 동국대 학생들과 지역 사찰을 연결해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재불사 장학 사업이다. 신중일 기자


**"홍보대사 배아현과 연탄 온기 전해요"**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이 홍보대사 배아현 씨를 비롯한 팬클럽 '아트' 회원 30여 명과 함께 12월 14일 서울 은평구 수색동 연탄골목에서 '온기를 전하는 연탄자비나눔'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 1월 연탄 나눔 당시 주민들이 호소했던 어려운 현실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탄골목 일대 6가구에 전달된 연탄은 2000장. 이미 연탄을 구매한 7가구에는 이불 13세트, 라면 20박스, 커피 13박스 등 생필품을 전했다. 임은호 기자

# 불교의례 '보편 기준' 모색한다

**12월 26일, 전자불전硏 주최**
**남산책방서 '불교의례 세미나'**

불교의례의 기원과 전통을 재조명하고, 세계 불교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 기준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주경 스님)는 12월 26일 서울 남산책방 2층에서 '불교의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예경과 찬탄, 공양, 참회, 수희, 회향 등 불교의례의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불교권과 남방 불교권에 전승돼 온 의례 전통을 비교·검토하고, 국제 교류 시대에 부합하는 공통 의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둔다.

경완 스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불교 수계의례의 기원과 정비(이자랑 불교학술원 교수) △중국 전통 총림의 불교의례(서울 불광산사 혜호 스님) △신라 의례의 흔적을 찾아서-일본의 논의(김지연 불교학술원 연구원) △미얀마의 불교의례(이진영 동국대 교수) △세계에 표준을 제시하다-한국 전통 불복장 의례(김연미 이화여대 교수) △국제 불교교류 합동의례를 위한 한국불교 의례 요소 분석(강향숙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이 발표된다.

전자불전연구소장 주경 스님은 "세계의 불교도들이 다른 문화권의 의례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각 전통의 현황과 초기 모델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세계 불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의례적 공통분모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